



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故 간체책씨 49재 추모제에서 죽은 이의 넋을 기리는 씨김국이 펼쳐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주여성들 “학대방지” 거리시위

나주시 숨진 몽골 여성 간체책씨 49재 인권개선 등 촉구 북부청~법원앞 행진

“이주 여성은 노예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한국인인 이주 여성이 이 땅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살길을 마련해 달라.” 몽골 이주여성, 외국인 유학생 200여명이 1일 북부청~서방4거리~광주교대~산수5거리~지산4거리까지 가두행진에 나서 이주 여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이주여성 인권보장을 위한 한국사회의 제도 및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법원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몽골 이주여성 간체책(25)씨의 49재 추모제를 계기로 모였으나, 그의 죽음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주여성 인권문제

때문에 결국 거리로 나섰다. 간체책씨는 지난 9월 14일 나주시 이창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피신한 몽골 동포 여성(21)의 남편 양모(34)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이주여성이다. 몽골에서 추모를 의미하는 붉은색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단 이들은 ‘아이에게 누가 엄마를 대신해 줄 것인가’, ‘살인자와 결혼시키는 국제결혼중개업 강력한 처벌과 단속을’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권 개선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주시 몽골여성회 대표인 난디아(여·37)씨는 “먼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명확히 이뤄져야 하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개월 된 아들을 안고 집회에 참석한 몽골 이주여성 불뜨마(27·나주시)씨는 “가슴이 아프다, 착한 친구였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앞서 이들은 전남대 도서관 앞 잔디광장에서 간체책씨의 49재 추모제를 열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 초등생 내년 전면 무상급식 중학생까지 시행은 무산

광주시교육청이 내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초등학생 전원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1일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 145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로 503억 여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광주지역 초등학생 11만6500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가 중학교까지 전면 시행하려면 무상급식에는 제동이 걸렸다.

국·공립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 시행하는데만 최소 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다 광주시가 재정사정을 고려해 급식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때문이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이르면 2012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막대한 예

산 소요로 일단 초등학교만 편성했으나 추경 때 중학생 1학년만이라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장만채 신문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제기된 ‘장만채 신문고’가 해당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밝혔다”고 1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 선관위는 이날 “신문고 명칭에 교육감 이름을 붙이고 통상적인 크기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베트남 신생아 한국인 만들기

서류위조 국적 세탁 뒤 불법출국... 3명 구속·28명 입건

불법체류 등으로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무자격 베트남인들에게 서류를 위조해 준 한국국적을 허위 취득하도록 해주거나 아이를 자국으로 불법 출국시킨 브로커와 의사 등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브로커 총책 김모(39), 남모(56)씨, 베트남 국적 E(여·3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베트남인 모집책과 신생아 부모 대행 노숙자 모집책, 출생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산부인과 김모(43)씨 등 28명을 공판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김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체류하는 동안 출산하거나 자국인과 동거중에 혼외출산한 베트남인들에게 출산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위조해 주고 이들이 낳은 신생아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 의뢰자들은 출산한 아이가 성장해 한국으로 재입국하면 초·중등학교 무상교육 등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국 내 취업과 자유로운 입출국 등 이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4분 해질 17시 38분 달뜨기 02시 09분 달짐 14시 49분



구분	구름조금	7/12°C	구름많음	8/12°C	맑음	9/13°C	구름많음	9/12°C	맑음	6/13°C	맑음	7/12°C	맑음	7/14°C	맑음	8/13°C	구름조금	6/11°C	구름많음	8/12°C	맑음	5/12°C	맑음	3/11°C	구름많음	10/11°C
광주	구름조금	7/12°C	구름많음	8/12°C	맑음	9/13°C	구름많음	9/12°C	맑음	6/13°C	맑음	7/12°C	맑음	7/14°C	맑음	8/13°C	구름조금	6/11°C	구름많음	8/12°C	맑음	5/12°C	맑음	3/11°C	구름많음	10/11°C

구분	종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보통	관심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보통	관심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보통	관심	낮음

구분	종양	파고	일출	일몰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목포	10:31	03:43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목포	22:59	16:02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여수	05:48	11:4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여수	18:04	--:--

지리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90곳 통제

15일부터 한달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건조기 산발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주요 국립공원의 일부 구간 탐방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국 국립공원 378개 탐방로(1355km) 가운데 산발 발생 위험이 큰 탐방로 90개(467km)는 이 기간 등산객이 드나들 수 없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공월별로 보면 지리산에서는 노고단~장터목, 대성리~세석평전, 치발목~천왕봉, 청학동~삼신봉~갈림길 등 17개 구간의 출입이 금지된다. 설악산은 비선대~대청봉~오색, 한계령탐방지원센터~한계령갈림길, 오세암~마등령 등 모두 11개 구간을 출입할 수 없다. 이외에 소백산(8개), 월출산(2개), 변산반도(4개), 계룡산(5개), 속리산(3개), 월악산(6개), 북한산(1개) 등도 일부 구간의 산행이 제한된다. 등산객이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익산점 (063)851-2422

www.jeongeup.go.kr

관광·레저 문화를 선도하는

사계절 관광도시 정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일 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갑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최대 외화 50%환율 / 영호권간 12월 무료 / 주유, 이체, 해외 22만 할인 / 학원, 배달 12만 할인

하나SK카드